제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마 26:31~35)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5.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번 한 주를 특별히 정해서 사순절의 의미, 십자가를 향해 가고계시는 주님과 그를 따랐던 열두제자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순절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그 기간을 매년 우리 마음속에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측면이 바로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를 위한 과도기였다는 겁니다. 제자 됨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갑자기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느냐,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자꾸 하는 것같이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자라고 하는 단어에 굳이 마음에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달라붙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구약의 예언서를 쭉 훑어나가는 과정 중에 생긴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귀환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마는 결국 A.D.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면서 선민의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리고 말아요. 지금 다시 시오니즘에 의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만 이천 년 동안 이 지상 위에 선민의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예수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받아들여야 할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민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불행한 결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이런 현실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는 어떤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을까, 교회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혹시 구약의 선민에게 임한 이러한 영적 재앙이 임하는 것인가?
정말 다방면에서 교회 자체가 지금 현재 영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일본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어떤 기독교 매체가 조용기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본의 잘못된 영적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면 그렇게 인터넷에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아니고, 또 그분이 특별히 남다른 입장인 것은 일본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고 실제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일본의 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영적인 문제성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던 차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말씀 끝에 하신 말씀이 '일본에는 이렇게 대지진으로 참사가 일어났는데 한국에는 교회에 대지진이 일어나야 된다, 영적 각성을 위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였습니다.
아주 백 퍼센트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만화를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누가 만화로 올려놓은 것으로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치셨다'는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비꼬아서 하는 얘긴데, 일본 지진 직전에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지역의 이름이 Christ Church였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라는 뜻의 이름이지요. 그러면 그곳에는 왜 지진이 일어났느냐고 비아냥댔더군요.

저는 그 만화를 읽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교회 내에도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 Christ Church에도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 일본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바로 한국교회 내에 Christ Church에도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의미를 담아서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더군요.

여러분, 현재의 교회 상황이 분명히 그저 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차원에서 저를 들여다보아도 문제가 있을 만큼, 또 그 내 자신의 문제가 교회에 총체적으로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영적인 무력한 상태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제 나름대로 찾아낸 단어가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가지 못한 채 제자의 상태로 머물고 있다, 제자가 누군가?

너무나 많이 제자라고 하는 말에 기독교적 의미부여가 되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부활 이전에 제자라고 부르셨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유대사회의 사람들이 그 열두 명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두 명과 예수님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다른 언어가 없었고 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밝히 깨우쳐 주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사회 배경 안에서는 오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내용적으로 실제로 될 수도 없고 언어상의 규정으로 '내가 그리스도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는 언어규정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결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 제자들에게는 제자 됨이 완전히 단절되고 종식되어 버린 사건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만나실텐데, 승천하신 뒤에 곧바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열두 명의 이름이 더 이상 제자라고 불리지 않고 사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 전에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상과 교훈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자라고 불렸지만,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라는 단어는 신앙에 입각한 자기고백적인 명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의 경우, 사도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즉 '**예수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즉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예수그리스도의 것이다, 성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나 자신을 규정할 때 사도바울은 더 이상 제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열두제자와 사도바울의 차이가 뭐예요?
열두 명 중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체험한 자가 없습니다.
사도바울은 누구보다도 제자라는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하생, 즉 7명의 오늘의 랍비라고 불리는 대 랍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제자라는 말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 '성도'라는 말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과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을 쓰면서도 제자라는 말을 굳이 안 써요.
이렇게 14편의 서신서 중에 굳이 안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자 됨의 현실이 뭡니까? 제자 됨이라는 것은 스승을 기대어서 나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든지 나 자신이 특정하게 원하는 어떤 전문분야의 기술을 완성하고 지식을 완성하든지 나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스승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뱀이 허물을 벗듯이 벗게 되고 이제 사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그리스도의 것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제자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느냐,
결국 나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태를 지향하고 향유하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의 단계가 아닌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현실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말에서 '훈련'이라는 것은 계속 내 몸과 내 마음의 익힘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해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또 하나의 예수님과 같은 인격,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을 연출해 내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연마해서 혼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단어의 사용에 아주 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의 교수님이고 영국 성공회 출신의 신학자인 James Packer 라는 분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께서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아취이다, 그 아취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 바로 영성과 도덕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성과 도덕성의 두 기둥 위에 놓여 진 아취가 바로 거룩이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거룩함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과 도덕성의 두 기둥'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개념사용인가를 염두에 두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리전트 칼리지에 계시고 타임지가 선정한 25인의 복음주의자 중에 한분이라고 해서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 도덕성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과 계명이 곧 도덕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면 제임스 패커 교수님께서 탁월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사용에 얼마나 부주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사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 이전의 제자 됨의 상태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라 이겁니다.
십자가의 영적 파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도덕성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덕성과 윤리성, 이렇게 얘기하면 보편적으로도 모두가 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윤리요 도덕입니다.
바로 이 도덕성과 윤리성은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깁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도덕성이라는 말로 기독교인의 거룩함이 표현될 수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시작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실제로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된 것으로 보지 않고 분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계몽주의 이후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맥락을 벗어나서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굳이 십계명과 성경의 교훈들과 관계 지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이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윤리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본성의 한 내재적인 요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러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도 '의로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도덕성을 뜻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율법과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의 행위가 죄냐 아니냐를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개혁주의신학 전통에 서있다고 여겨지는 패커 교수님이 왜 도덕성과 영성을 구분을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영성 안에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성과 도덕성이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두 기둥이 아닙니다. 두 기둥이 아니라 마치 낚시 대와 같이 영성 안에 율법의 완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지요, 영성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성이 낚시 대의 맨 아래 굵은 마디라고 하면 율법과 계명의 완성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분리된 두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제 자신의 믿음에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속에서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것,
제가 지난 주간에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R. A. 토레이의 <성령 충만 받는 법>과 A. W.

토저의 <보혜사>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법은 일곱 가지 법칙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A. W. 토저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 세 가지, 성령 충만을 받는 법 네 가지.
이렇게 하고서야 누가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일곱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그걸 다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니, 이건 복음 안에서 또 다른 율법주의가 만들어 지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책들을 보면 해라, 해라, 해라,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동안 계속 뭘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에서 이 강건함이라는 문제도 그저 일견에 문제가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바울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는 얘기를 드릴 때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약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합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몸이 사단의 가시를 갖고 있는 이 약한 상태를 자랑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한 군데에서만 자기 몸의 가시가 있단 말을 기록했습니다만 사도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다는 상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이 사도바울의 서신이에요. 그 14권의 서신이 바로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는 사도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쓰여 진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쓰여 진 성경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몸의 건강만을 복음에 주어지는 세 번째 복으로 주장하면서 구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이 모든 기독교의 혼란스러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

결국은 그 궁극을 따져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완성시키고 내 인격을 완성시키고 내 인생을 완성시키고 내 일의 형통을 원하는 자기완성의 제자 됨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베드로가 기어코 예수님이 예언하신대로 세 번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7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의 눈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수용하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동행할 수 없음을 그 한계를 드러내는 눈물입니다.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제로원(0,1)이라는 상징적인 기호를 통해서 한가지만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아직까지도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R. A. 토레이가 1800년대의 부흥과 1900년대의 부흥운동을 이어간 조나단 에드워드, 디엘 무디,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충실하게 받아지면 십자가 하나만을 추구하면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또 제임스 패커 교수가 말하신 대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룩의 문제가 있어서 도덕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완전히 습득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영성에 우리가 충분히 체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십자가를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의 세계에 대한 묘사일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 일곱 가지 방법을 따로 가야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두제자가 제자로서 쫓아갈 때, 다시 말해서 자기완성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갈 때 십자가에서 좌절되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에서 좌절되고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 십자가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야 오순절 성령 충만도 일어나고 거룩함도 일어나고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든지 성령 충만이라든지 율법의 완성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딘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십자가 이외의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사도바울의 그 결심이 어디서 생깁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아직도 문제가 있다면 십자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도덕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래요. '율법과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그분 자신은 그런 뜻으로 사용한 말이 아니더라도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이라는 말이 따로 계속해서 사용되다 보면 나중에 18세기의 계몽주의적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 내고 그리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덕성을 이루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편하자고 도둑질하지 않은 것뿐이지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에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죄 사함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주제가 도대체 십자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 됨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완성시키고 나의 일을 완성시키고 나의 인격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로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기독교서적 중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복음 안에서의 율법주의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해라, 해라, 해라'가 다 없어지고 오직 십자가 하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들어 금요일에 오늘에 번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 다루는 주제가 네 번째에 끝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오늘의 번제라고 해 놓고는 왜 금요일에 안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늘의 번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고 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번제'라고 그래서 01Gospel TV가 매일 아침 해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01Gospel TV가 여러분의 주님과의 동일시의 연합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침마다 '날마다 죽노라'고 한 사도바울의 고백을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하기 힘이 듭니다. 아주 실질적인 문제로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간격이 멀어지면 내가 혼자 주님의 십자가에서 동일시되는 연합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천년 전의 사건을 듣는 사람 앞에서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주관할 수는 없지만 돕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금요일 하루 오늘의 번제를 하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네 번에 걸쳐서 방송된 오늘의 번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고 오늘의 번제의 의미를 내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못할 것이 없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 방송에 매여가지고 산다는 것은 제로원 복음방송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게 되기도 하는 것이더라, 이런 얘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얘기죠.

문제는 내 자신이 오늘의 번제의 의미를 오늘에 내 것으로 삼겠다고, 십자가 사건을 오늘에 내 것으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에 그냥 몸이 아파서 안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로원 복음방송이 주관할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이죠.

이번 주간 동안은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가 하면 '죄 사함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문제를 십자가 사건과 연관 지어서 함께 생각하는 동안에 정말 믿음의 모든 신령한 복,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가능한 은혜의 세계가 그냥 십자가 하나를 제로원의 원리로 붙잡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됨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베드로의 눈물과 같은 단계가 거쳐지면서 진정으로 이 모든 내용의 혼란함이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셔지고, 한국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 자신 한 사람이 모든 혼란이 다 사라지고 십자가 하나 분명히 밝히 봄을 통하여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축복들이 다 현실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번 지향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끊임없는 기독교의 내용의 해석들이 정말 어느 것을 향해 쫓아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십자가 하나 붙잡음을 통하여 모든 영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모든 영적인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나 자신에게 미혹됨을 허락하지 않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